

**담당 : 홍보팀 김균섭 ㅣ E-mail : media@klpga.org**

**‘제14회 KG 레이디스 오픈’ 2R 오전조 주요 선수 코멘트**

 **신다인, 고지원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제14회 KG 레이디스 오픈 |
| 2 | 기 간 | 2025년 8월 29일(금) ~ 8월 31일(일) |
| 3 | 장 소 | 써닝포인트 컨트리클럽 [Sun(OUT) / Point(IN)]  |
| 4 | 주 최 | KG그룹 |
| 5 | 주 관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 |
| 6 | 총 상 금 | 10억 원 (우승상금 1억 8천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826야드-예선, 6,728야드-본선 |
| 8 | 참가인원 | 120명 |
| 9 | 주요출전선수 | 배소현, 이예원, 노승희, 박현경, 방신실, 이동은, 고지우, 이가영, 김민선7김민주, 정윤지, 고지원, 유현조, 김시현, 송은아, 서지은, 서연정, 황정미김수지, 정슬기, 김지현, 김채린(A) 등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(생중계) | [1라운드] 11시 ~ 17시[2라운드] 11시 ~ 17시[최종라운드] 10시 ~ 16시 |

**◈ 신다인, 2라운드 중간합계 11언더파 133(67-66)타 \*단독 1위(13:40 기준)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135>

**[신다인(24) 주요기록]**

**- 2025시즌 정규투어 시드 순위 26위**

**\*2025시즌 최고 성적**

**: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025 / 크리스에프앤씨 제47회 KLPGA 챔피언십 공동 14위**

**- 'KLPGA 2020 볼빅 · 백제CC 점프투어 5차전' 우승**

**- 2016년 국가대표 / 2017년 국가 상비군 출신**

**Q. 경기 소감은?**

솔직히 오늘은 기대를 전혀 안 했다. ‘딱 3개만 치자’는 마음이었는데 사실 못 칠 줄 알았다. 운이 좋게도 샷이 너무 잘 붙어서 결과적으로 버디 6개를 기록했다.

**Q. 퍼트는 어제와 비교해 어땠나?**

어제는 기회가 오면 거의 다 넣었다. 반면 오늘은 초반부터 3~4홀 연속으로 버디 찬스가 왔는데, 그중 하나밖에 넣지 못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렵겠다고 생각했는데 약 15미터 정도 장거리 퍼트를 하나 넣으면서 답답하던 경기 흐름이 조금씩 풀렸다. 점수로 치면 어제는 80점, 오늘은 40점 정도 주겠다.

**Q. 목표는 3타였는데 실제로는 6타를 줄였다. 소감은?**

경기 중에는 내가 6언더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. ‘버디네, 또 버디네’라고 생각만 했는데, 끝나고 보니 6언더였다. 기분은 너무 좋지만, 솔직히 내일이 좀 부담스럽다. 이런 적이 처음이라 멘탈을 잘 잡고 내일도 ‘3개만 치자’는 마음으로 플레이 하겠다.

**Q. 본인만의 독특한 스윙에 대해 설명해 달라.**

나는 임팩트 순간 공을 안 보고 친다. 머리가 돌아가면서 치는데, 이를 고치려다 더 나빠져서 지금은 나만의 스타일로 받아들이고 있다. 오히려 지금은 강점이 됐다.

**Q.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.**

우승 욕심이 없다면 거짓말이다. 하지만 주변에서 늘 ‘우승은 하늘이 내려준다’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, 내일도 그저 묵묵히 언더파를 목표로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. 걱정도 되지만 멘탈을 잘 잡고 ‘3개만 치자’는 마음으로 임할 것이다.

**◈ 고지원, 2라운드 중간합계 8언더파 134타(68-68) \*공동 2위(13:40 기준)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10109>

**Q. 오늘 경기 소감은?**

경기 초반에 실수하면서 아쉽게 보기가 나오긴 했지만, 감은 나쁘지 않았다. 특히, 보기를 하더라도 버디를 더 많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반에 버디를 잡고 마무리해서 만족한다.

**Q. 초반에 보기 상황에서 흔들릴 수 있었는데, 어떻게 마음을 다잡았나?**

보기는 경기 중에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.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, 버디를 더 많이 기록하기 위해서만 더 집중했다.

**Q. 이 코스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나?**

티샷이 가장 중요하다. 티샷이 페어웨이에 가면 핀 위치에 따라 공격적으로 공략하고, 러프에 가면 욕심 부리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가고 있다.

**Q. 최종라운드를 앞둔 각오는?**

돌아갈 때는 돌아가더라도 감이 좋으면 공격적으로 칠 계획이다. 언제나 10타 차가 아닌 이상은 누구나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일도 내 플레이에만 집중하면서 즐겁게 치겠다.